

## 추가자료 ⑧



## [어떤 연구원의 일기]

2121/4/4

오늘부터, 아시모프 연구소로의 배속이 결정되었다. 일상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기를 여기에 기록한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며, 수명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121/7/3

원시적인 구형 안드로이드 "하루"를 제조했다. 이름은 내 이름에서 연상해서 지었다. 지금 시대에 음식 이외의 이름을 짓다니, 약간 시대착오일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싶다.

2121/9/8

연구소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다. 다른 연구원과도 교류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경애하는 선배들은 이른바 삼각관계에 있는 듯하다. 시나몬 선배를 두고, 머스타드 선배와 민트 선배가 다투고 있다. 내 판단으로는 민트 선배가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떨까.

2121/10/10

대학에 남은 치요코도 연구 쪽은 잘 되고 있다고 한다. 기쁜 일이다. 그녀에게는 언젠가 내 시한부 일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치요코라면 이미 진작에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치요코를 남기고 죽는 것이 아쉽다.

2121/12/29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산타 코스프레 의상을 하루는 아직도 입고 있다.  
내 코스프레 취미가 그녀에게도 반영된 것인지도 모른다. 코스프레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루에게 추가할 숨겨진 기능을 생각해냈다.  
새해가 되면 바로 시도해보고 싶다.

2122/1/3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하면 새로운 모드를 설치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을  
하루에게 추가했다. 제1탄은 "모드: 닥터"이다. 처음에는 간호사복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했지만, 내 기술로는 완성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구시대의 의사를 이미지해서 디바이스를 만들었다.

2122/3/12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은 시간에 조금씩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외부 디바이스의 제2탄이 완성되었다. "모드: 디텍티브"용 외부 디바이스는  
추리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명탐정을 이미지해서 만들었다. 파이프 담배  
형태로 할까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200년 전의 반흡연 운동의 영향을  
고려해 포기했다.

2122/4/21

하루에게 형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받아서, 새로운 안드로이드를 제조하기로  
했다. 이름은 "FUYU900"으로 하려고 한다. 애칭은 "토우코"다. 자매애라는  
측면에서 안드로이드와 사랑에 대해 연구해도 재미있을지도 모른다.

2122/7/7

토우코의 손재주가 뛰어나서 놀랐다. 그런 설계는 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안드로이드 연구는 깊이가 있다. 최근, 배우고 있던 나노머신 공학의 지식을 응용할 수 있었던 것과, 손재주가 좋은 토우코의 덕분도 있어 "모드: 닥터"의 새로운 디바이스로 간호사복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전에 만든 디바이스와 동시에 장착하면, 더욱 강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에너지 상태가 높지 않으면 새로운 버전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2122/8/13

틈틈이 진행하고 있던 외부 디바이스의 제3탄이 새로 완성되었다.

"모드: 바운티 헌터"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및 그 원작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의 영향을 받아, 레이저 건으로 레플리컨트를 처리하는 주인공을 의식해서 만들었다. 이 영화는 안드로이드 학자로서는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20세기에 안드로이드와 인간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그렸다는 것은 선견지명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2122/8/14

시험 삼아 토우코에게 "모드: 바운티 헌터"를 설치하고, 나에게 사용해보았다. 당연하지만, 나는 "자신을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판정되었다. 선배들에게도 재미있을 거라고 권해보았더니, 시나몬 선배가 싫은 표정을 지었다.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머스타드 선배나 민트 선배 중 한 명이 실은 안드로이드일지도 모른다.

2122/8/16

시나몬 선배에게서 진실을 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만이 발견한 세기적인 발견에 대해서도 들었다. 확실히 그녀가 말한 것처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감정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안드로이드는 더욱 인간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기술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존재 증명이기도 하다. 다음에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는, 그녀가 말하는 "사랑의 시크릿 코드"라는 것을 도입해보자.

2122/9/5

오늘은, 아시모프 연구소에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다. 내가 연구소 안내와 안드로이드에 관한 간단한 강의를 담당했는데, 그 중에서 엄청난 인재를 발견해버렸다. 라임이라는 천재 소년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는 몇 가지 토론을 나누었고, 마지막에는 "연구에 대해 더 자세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와 같은 천재가 있다면, 안드로이드 연구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2122/11/20

연구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하루와 토우코는 여전히 건강하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 라임의 메일은 놀라웠다. 평소에는 전문적인 연구 질문을 해오는 그가, 어린 시절 친구인 여자아이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상담해 오다니 아이다운 면도 있구나 하고 미소 짓게 되었다. 다만, 아쉽게도 연애에 관해서는 나는 완전히 문외한이었기에, 다음에 시나몬 선배를 포함해 셋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2122/12/20

나와 시나몬 선배와 라임 셋이서 카페에 갔다.

라임의 연애 이야기는, 내가 따라가지 못했지만, 시나몬 선배의 적절한 조언으로 "자신감이 생길 때쯤 고백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다.

연애에 서툰 나조차도, 이미 둘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닐까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라임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다.

그 후의 안드로이드학에 관한 토론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라임도 내년쯤에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프로그래밍할 것 같다.

시나몬 선배는 이전에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시크릿 코드"의 존재를 라임에게도 전했다. 그도 새로운 인공지능에는 그것을 도입해볼 거라고 한다.

2123/2/10

치요코에게 수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작에 그녀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가 콜드슬립 장치를 만들고 있던 것은 전부 나를 위해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의 장치가 완성되기 전에 내 수명이 먼저 다할 것 같다.

치요코에게는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123/4/5

앞으로 한 달도 수명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든 무사히 연구를 정리할 수 있어서 지금은 안도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이름은 "NATU900"으로 했다. 애칭은 "나츠"다. 나츠에 관한 이야기는 하루 등에게 전해두었다. 여동생을 만날 수 있는 20년 후가 기대된다고 하루는 말했다. 나의 마지막 계획에 대해서는, 선배들과 라임에게만 전하기로 했다. 치요코에게도 전하고 싶었지만, 중요한 실험을 앞두고 있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안드로이드도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치요코는 2020년 후의 미래에 내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라면 내 뒤를 이어받아, 안드로이드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줄 것이다. 즐거운 인생이었다. 내 자식들, 그리고 치요코에게 행복이 있기를.

